

## 주요 내용

### 1. [한국교회 명목상 교인 실태]

한국교회 출석교인 10명 중 4명(39.5%)은 '명목상 교인'!

### 2.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 1) 1인 가구 유형에 따른 삶의 질
- 2) 거주지역에 대한 자부심



# 한국교회 출석교인 10명 중 4명(39.5%)은 ‘명목상 교인’!

우리 연구소는 지난 11월 23일, 한국교회 최초로 ‘한국교회 명목상 교인 실태 조사’ 결과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명목상 교인은 누구를 말하는가? 2018 로잔 운동에서는 ‘1)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교회 소속이 없거나, 2)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믿는 고백이나 구원의 확신이 없으며, 3)신앙의 성장을 위한 규칙적인 교회 활동이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4)헌신하지 않고 피상적인’ 이라는 4가지로 명목상 교인을 범주화한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명목상 교인을 신앙에 관한 ‘정체성’, ‘신념’, ‘활동’을 포함하는 몇 가지 로직을 통해 접근해 보았다. 스스로 기독교인 인식,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근거, 구원의 확신, 신앙생활의 목적, 신앙 활동 참여도 등 7가지 기준을 통해 명목상 교인을 정의한 결과, 최종 39.5%, 즉 출석교인 10명 중 4명이 명목상 교인으로 분류됐다.

이번 <넘버즈 217호>는 가나안 성도와는 다른 한국교회 내 명목상 교인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써 우선 명목상 교인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서부터 출발하여 그 규모와 집단의 특성과 신앙 의식을 파악하고자 했다.

한국교회 하락세와 맞물려 명목상 교인은 가나안 성도, 더 나아가 신앙이탈로 발전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번 명목상 교인에 대한 주요 지표가 발표된 것을 계기로 한국교회가 명목상 교인에 적합한 양육 및 사역 방향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교회 명목상 교인 실태조사

### 조사개요

구분	내용
조사 대상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교회 출석자
조사 방법	패널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On-line Research)
표본 규모	총 1,000명(유효표본)
표본 추출 방법	개신교인 지역/성/연령별 비율에 따른 비례할당추출
표본 오차	± 3.1% (95% 신뢰구간)
조사 기간	2023년 6월 2일 ~ 6월 8일(7일간)
조사 기관	(주)지앤컴리서치
연구 분석	목회데이터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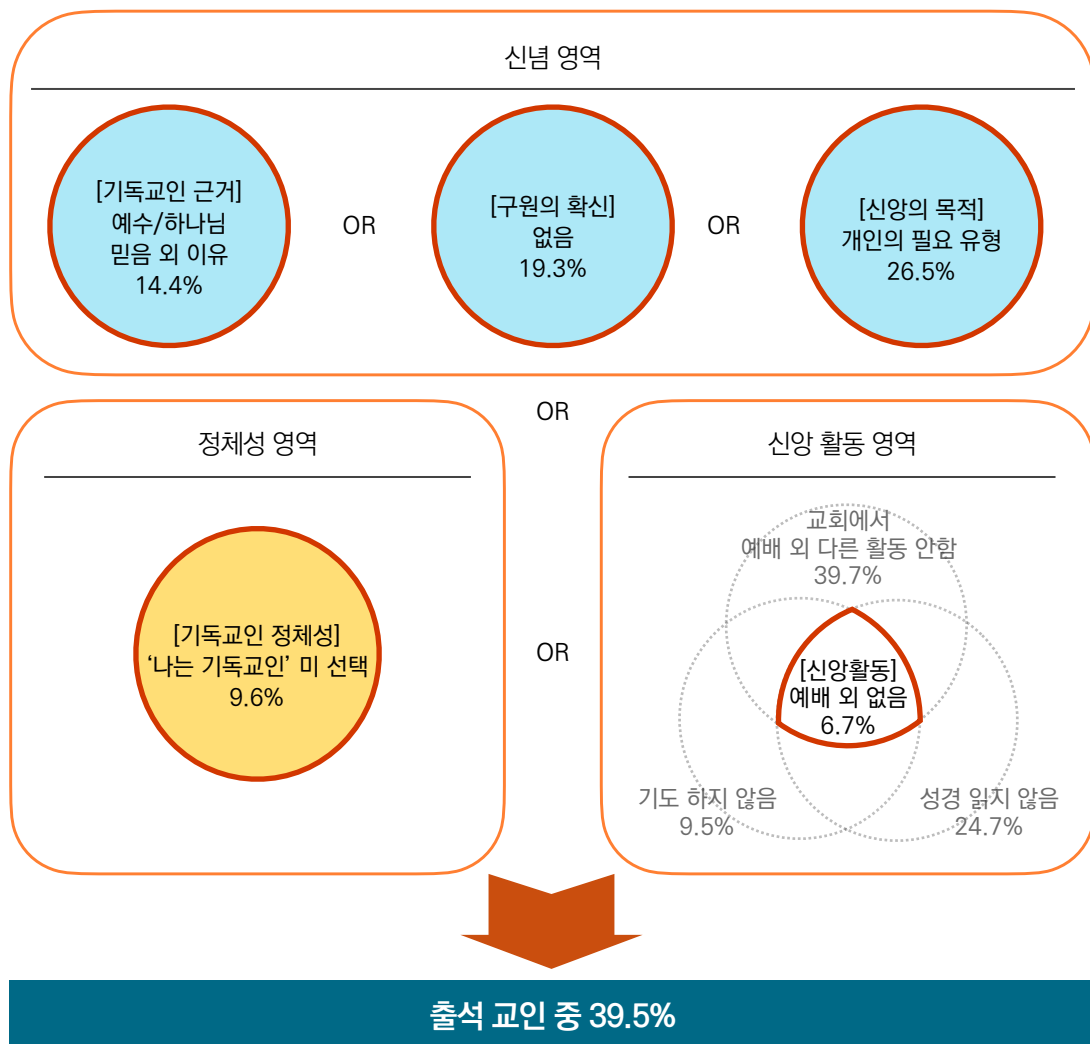
# 01

## [명목상 교인 정의]

### 한국교회 출석 교인 중 '명목상 교인' 비율 39.5%

- ▶ 명목상 교인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영역(신앙 활동 영역, 정체성 영역, 신념 영역)의 질문에서 추출하여 정의하였다.
- ▶ '정체성 영역'은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응답하지 않은 교인을, '신념 영역'에서는 기독교인 근거가 '예수/하나님 믿음' 외 응답자이거나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신앙의 목적이 개인의 필요 유형인 교인을, '신앙 활동 영역'은 교회에서 예배 외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성경 읽기/기도를 안 하는 교인으로 정해 이 세가지 영역을 하나라도 충족하는 교인을 명목상 교인으로 책정했다.
- ▶ 위의 세 가지 영역을 통해 '명목상 교인'으로 정의하고, 그 비율을 측정한 결과, 출석 교인의 39.5%가 명목상 교인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명목상 교인 측정 (교회 출석 개신교인)



참조) '2018 로잔 운동'에서 정의한 '명목상 크리스천'(Nominal Christian) 범주

1. 교회에 다니지 않는 그리스도인
2.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3. 회심이나 중생하지 않은 그리스도인
4. 헌신이 없는 피상적인 그리스도인

## ◎ 중직자 4명 중 1명은 ‘명목상 교인’!

- ▶ 명목상 교인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20대 연령대, 미혼, 직분이 낮은 성도, 출석교인이 100~499명인 중형교회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특히 직분별로 중직자 4명 중 1명(26%)은 명목상 교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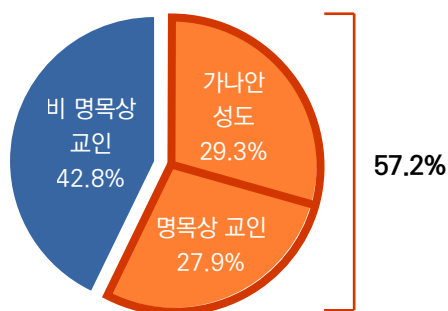
[표] 명목상 교인 응답자 특성 (교회 출석 개신교인, %)

		명목상 교인 비율				명목상 교인 비율				명목상 교인 비율	
성별	남성	45	경제 수준	상/중상	39	출석교회 교인수	49명 이하	35			
	여성	36		중	36		50~99명	36			
연령	19~29세	50	하/중하	43	100~499명		44				
	30대	41	중직자	26	500~1,999명		43				
	40대	37	서리집사	34	2,000명 이상	35					
	50대	37	일반성도	50	신앙 경력	19년 이하	53				
60세 이상	38	교회 출석주기	매주 참석	27		20~29년	40				
	결혼 여부		기혼	37		한 달에 2~3번	67	30~39년	41		
			미혼	47		한 달에 1번 이하	75	40년 이상	28		

## ◎ ‘명목상 교인 + 가나안 성도’ 비율, 한국 개신교인 중 57.2%

- ▶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에 따르면 2023년 개신교인 중 교회 출석자가 70.7%, 가나안 성도가 29.3%였다. 앞에서 교회 출석자 중 명목상 교인이 39.5%로 나타났는데, 이를 가나안 성도까지 포함한 전체 개신교인을 기준으로 하면 27.9%가 된다. 따라서 ‘가나안 성도’와 ‘명목상 교인’을 합하면 전체 한국 개신교인의 57.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림] 한국 개신교인 중 ‘명목상 교인+가나안 성도’ 비율 (전체 개신교인)



\*비 명목상 교인 : 출석 개신교인(70.7%) X 비명목상 교인 비율(60.5%)

\*\*명목상 교인 : 출석 개신교인(70.7%) X 명목상 교인 비율(3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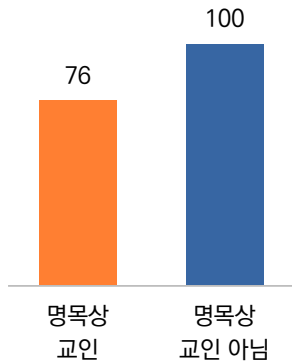
\*\*\*가나안 성도 :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2023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2,000명, 온라인 조사, 지앤컴리서치, 2023.01.)

#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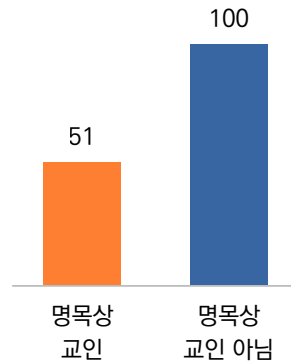
## [명목상 교인의 정체성 인식] 명목상 교인 4명 중 1명, '스스로 기독교인' 단정 못 해!

- ▶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었을 때 '명목상 교인'은 76%만이 '그렇다'고 응답했고 나머지 24%('잘 모르겠다' + '아니다')는 '나는 크리스천'이란 인식이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 ▶ 구원의 확신 여부를 물은 결과, 명목상 교인의 51%만 '확신한다'고 응답해 절반에 불과했다.

[그림] 스스로 기독교인 인식  
(교회 출석 개신교인, '그렇다' 응답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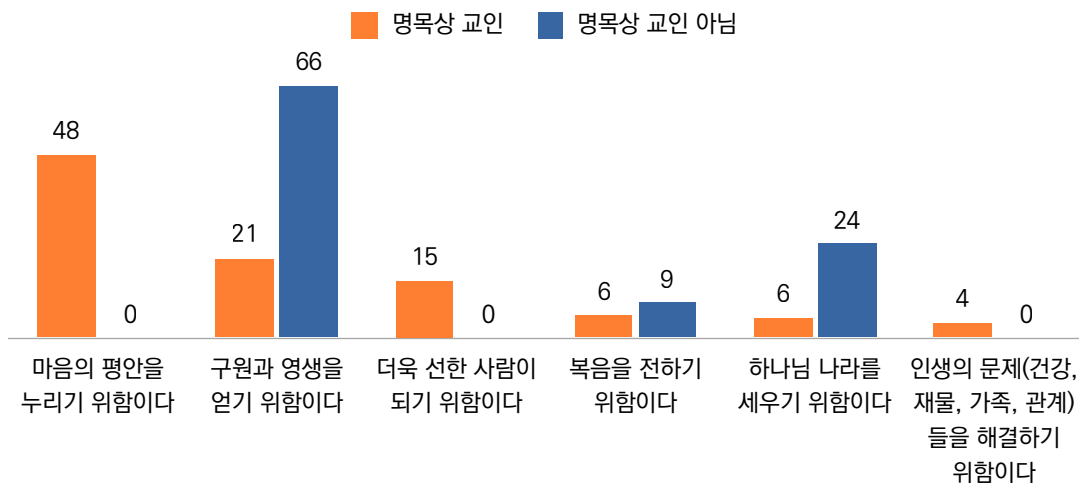
[그림] 구원에 대한 확신  
(교회 출석 개신교인, '확신한다' 응답 비율, %)



### ◎ 신앙의 목적, 명목상 교인은 '마음의 평안', 비 명목상 교인은 '구원과 영생'!

- ▶ 기독교를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물은 결과, '명목상 교인'은 '마음의 평안'(48%)을 꼽은 비율이 다른 본질적인 이유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비 명목상 교인'은 3명 중 2명이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함'이라고 응답한 것과는 인식의 차이가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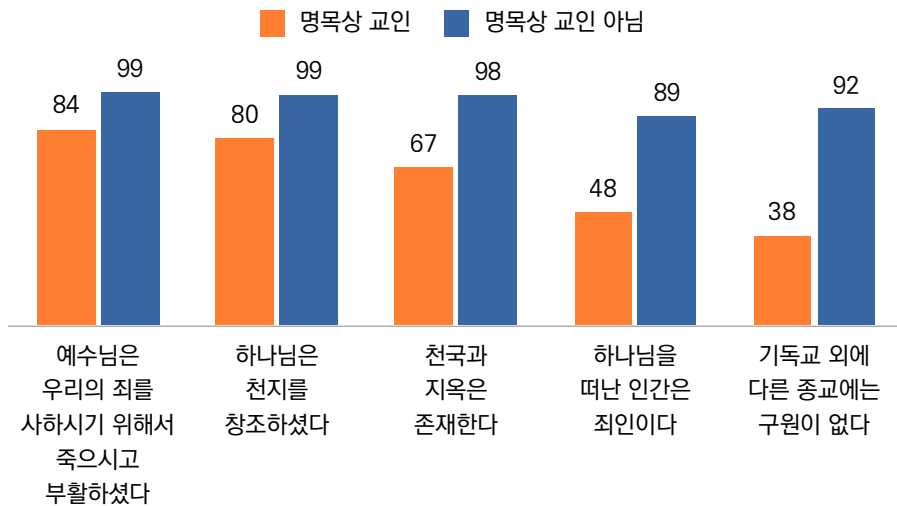
[그림] 기독교 신앙의 목적 (교회 출석 개신교인, %)



## ◎ 명목상 교인 10명 중 6명,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믿어!

- ▶ 신앙적 주제에 대한 몇 가지 진술문을 제시하고 '명목상 교인'에게 각각의 동의 여부를 물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항목에 대해서는 80% 대의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
- ▶ 다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인이다'에 대해서는 절반가량만 동의했고, '기독교 외 타 종교에 구원이 없다'에는 명목상 교인 10명 중 4명(38%)만 '그렇다'고 응답해 나머지 10명 중 6명(62%)은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는 신앙적 명제에 대해 확신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신앙적 주제 인식 (교회 출석 개신교인, '매우+그렇다' 비율\*, %)



\*4점 척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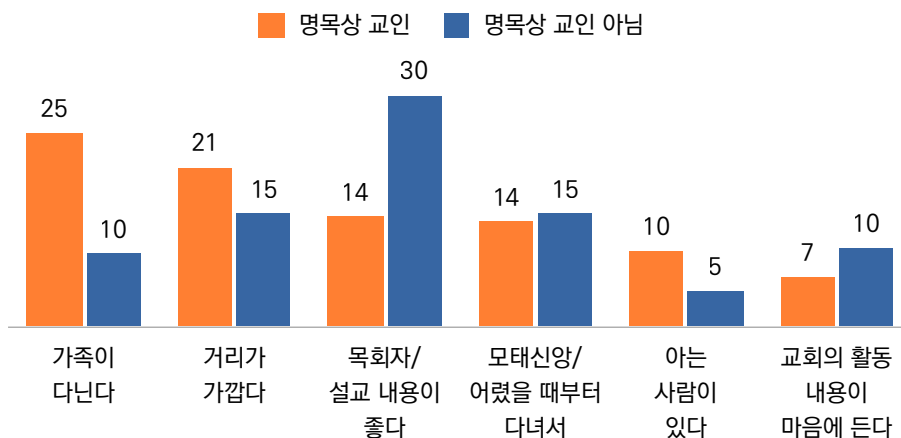
## 03

### [명목상 교인의 교회생활]

## 명목상 교인의 교회 선택 이유, '가족'과 '거리'!

- ▶ 현재 교회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물었다. 그 결과, '비 명목상 교인'은 '목회자/설교 내용이 좋다'가 압도적 1위를 차지했으나, '명목상 교인'은 '가족이 다닌다'(25%)가 가장 큰 이유였고, 다음으로 '거리가 가깝다', '목회자/설교 내용이 좋다' 등의 순이었다. 명목상 교인에겐 '가족'과 '거리' 요인이 교회 선택의 주요 고려 사항인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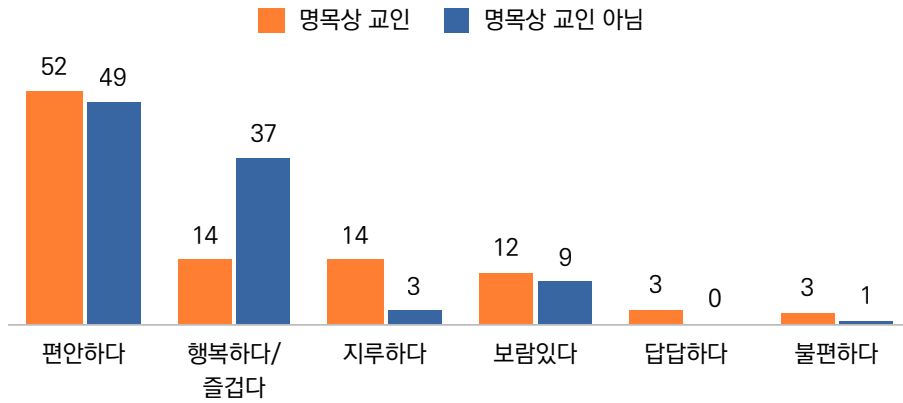
[그림] 현재 교회 선택 이유 (교회 출석 개신교인, 상위 6위, %)



## ◎ 교회에서 받는 느낌, 비 명목상 교인 대비 행복감 ↓, 지루함 ↑

- ▶ 교회에 갔을 때 일반적으로 어떤 느낌을 받는지를 물었더니, '편안하다'는 의견이 명목상 교인과 비 명목상 교인 모두 가장 높았으나 차순위로 응답한 '행복/즐거움'에 대해서는 명목상 교인은 14%, 비 명목상 교인 37%로 명목상 교인이 교회 내에서 '행복/즐거움'을 느끼는 경우는 비 명목상 교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반면 '지루하다', '답답하다', '불편하다'는 부정적 느낌에 대한 응답률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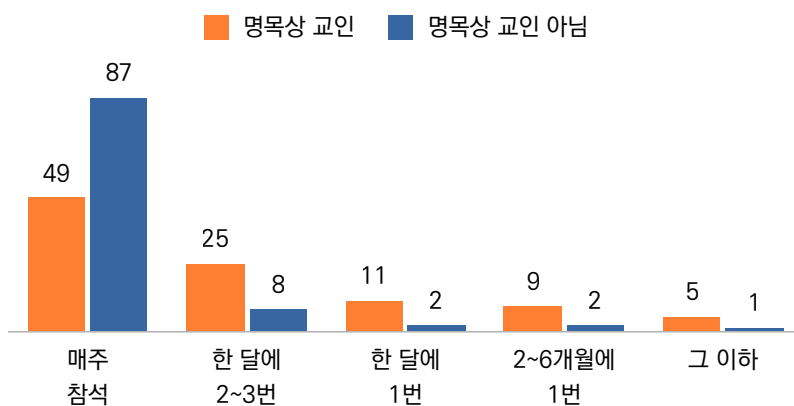
[그림] 교회 갔을 때의 일반적인 느낌 (교회 출석 개신교인, %)



## ◎ 명목상 교인 2명 중 1명만이 매주 교회 출석해

- ▶ 교회 출석 빈도를 묻은 결과, 명목상 교인의 '매주 교회 참석' 비율은 49%로 나타났다. '명목상 교인이 아닌 그룹'의 매주 교회 참석률이 87%이니 절반 가까이 낮은 셈이다. 그 외에 '한 달에 2~3번' 25%, '한 달에 1번' 11% 등의 순으로 응답했고, '한 달에 1번 미만' 참석률이 전체 명목상 신자 7명 중 1명꼴(14%)이었다.

[그림] 교회 출석 빈도 (교회 출석 개신교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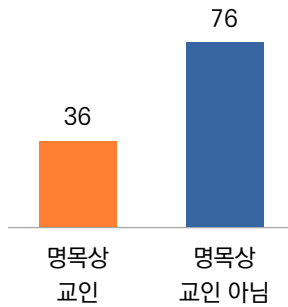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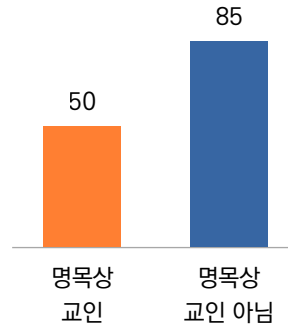
## ◎ 명목상 교인의 예배 외 활동 참여, 비 명목상 교인의 절반에도 못 미쳐!

- ▶ 교회에서 예배 외 다른 활동에 참여하는지 여부를 물었다. 그 결과, '명목상 교인'은 36%, '명목상 교인이 아닌 자'는 76%가 '참여한다'고 응답해 교회에서 명목상 교인의 예배 외 타 활동 참여율이 비 명목상 교인보다 절반 이상 낮았다.
- ▶ 교회 양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향을 물은 결과, 명목상 교인은 '참여 의향 있음' 50%로 비 명목상 교인의 대다수(85%)가 참여 의향을 보인 것과는 큰 격차를 보였다.

[그림] 교회 내 예배 외 다른 활동 참여 여부  
(교회 출석 개신교인, '참여하고 있음' 비율, %)



[그림] 양육 프로그램 참여 의향 (교회 출석 개신교인, '매우+어느 정도' 의향 있음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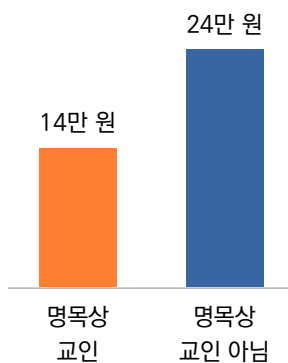


\*4점 척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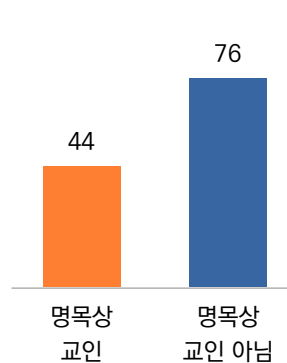
## ◎ 명목상 교인의 헌금 액수, 비 명목상 교인에 크게 못 미쳐!

- ▶ 월평균 헌금액을 물은 결과, '명목상 교인' 14만 원, '비 명목상 교인' 24만 원으로 집계되었다.
- ▶ 한편 십일조 여부를 물었더니 비 명목상 교인은 4명 중 3명(76%)이 '십일조를 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명목상 교인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4%만 십일조를 드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림] 월평균 헌금액 (헌금 봉헌자, 미혼자는 개인, 기혼자는 부부공동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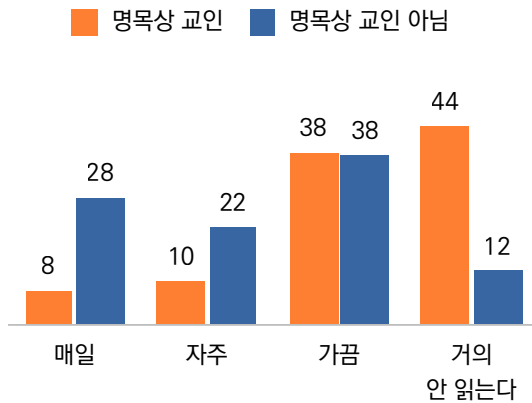
[그림] 십일조 봉헌 여부 (교회 출석 개신교인, '십일조 하고 있음'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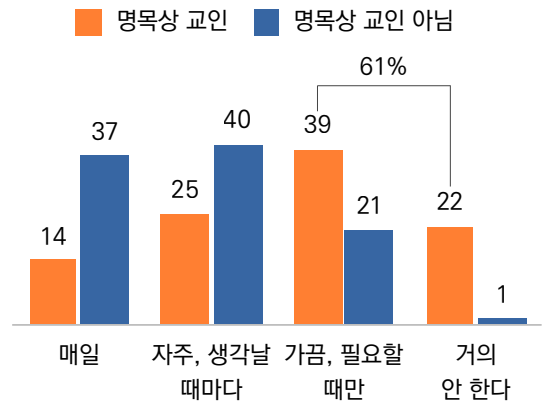
## ◎ 명목상 교인 44%, ‘성경 거의 안 읽는다’!

- ▶ 성경을 읽는 시간을 명목상 교인과 비 명목상 교인 간 비교해 보았다. ‘명목상 교인’의 경우 ‘거의 안 읽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44%로 절반 가까이 되었다. 반면 ‘비 명목상 교인’은 ‘가끔(38%)’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매일’, ‘자주’ 순으로 응답해 명목상 교인과 성경 읽기 시간에서도 대조적인 양상을 보였다.
- ▶ 기도 시간의 빈도를 살펴본 결과, ‘명목상 교인’은 ‘가끔, 필요할 때만 한다’ 39%, ‘거의 안 한다’ 22%로, ‘명목상 교인’ 5명 중 3명(61%)은 평소 기도 생활을 아예 안하거나, ‘필요할 때만’ 가끔 기도하는 특성을 보였다.

[그림] 성경 읽는 시간 (교회 출석 개신교인, %)



[그림] 기도 하는 시간 (교회 출석 개신교인, %)



\*아래 내용은 본 조사에서 명목상 교인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과 분석 방법이다. 개 교회에서 필요시 아래 설문과 분석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 ‘명목상 교인’ 선별 질문

[Q1] 귀하께서는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잘 모르겠다

[Q2] ([Q1]의 ①응답자만) 귀하가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여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믿기 때문에  
②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에  
③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④ 교회를 (자주 혹은 가끔이라도) 다니기 때문에  
⑤ 기타

[Q3] 귀하께서는 현재 구원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Q4] 귀하는 기독교 신앙의 목적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더욱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함이다  
②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함이다  
③ 인생의 문제(건강, 재물, 가족, 관계)들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④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함이다  
⑤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⑥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다.  
⑦ 기타

[Q5] 귀하는 교회에서 예배 외에 다른 활동(성경공부, 기도회, 친교, 봉사활동)에도 참여하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Q6] 귀하께서는 예배시간을 제외하고 성경을 얼마나 자주 읽으십니까?

- ① 매일      ② 자주      ③ 가끔      ④ 거의 안 읽는다

[Q7] 그럼, 예배 시간을 제외하고 개인적으로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 ① 매일      ② 자주, 생각날 때마다      ③ 가끔, 필요할 때만      ④ 거의 안 한다

### 응답 결과 분석(명목상 교인 측정 로직)

A : [Q1] ②, ③번 응답자

B : [Q2] ③, ④, ⑤번 응답자

C : [Q3] ②번 응답자

D : [Q4] ①, ②, ③번 응답자

E : [Q5] ②번, [Q6] ④번, [Q7] ④번을 동시에 선택한 응답자

A~E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 교인은 이번 조사에서 책정한 기준의 ‘명목상 교인’입니다.

\*Q1=정체성 영역 질문, Q2/Q3/Q4=신념 영역 질문, Q5/Q6/Q7=신앙 활동 영역 질문

# 시사점

명목상 기독교(nominal Christianity)는 주로 탈 기독교 세계(post-Christendom)에 접어든 서구교회의 현상이었지만, 기독교가 전래한 지 4세대가 지난 곳에서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는 가나안 성도와 탈 교회 현상을 접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도 명목상 기독교는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다. 명목상 교인에 관한 조사는 가나안 성도 조사와는 성격이 다르다. 가나안 성도는 현재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교회가 있는 지의 여부로 비교적 단순하고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다. 그러나 명목상 교인을 구분하는 것은 그들의 신앙 인식과 생활에 대한 더욱 복합적인 질문을 통해서 추정 가능하다.

로잔운동은 명목상 그리스도인의 범주를 (1)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교회 소속이 없거나'(not affiliated), (2) '규칙적으로 교회 활동이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not practicing), (3) '회심, 또는 거듭남이 없는'(not converted, unregenerated), 그리고 (4) '헌신하지 않고 피상적인'(not committed, superficial) 이라는 네 가지로 제시한다. 이번 명목상 교인 조사에서 위의 네 가지 범주에서 가나안 성도에 해당하는 (1)의 경우를 제외하고, (2)~(4)의 명목상 교인 범주들을 고려해서 한국의 명목상 교인 비율을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1) 신념 영역, (2) 신앙 활동 영역 그리고 (3) 신앙 정체성 영역으로 나누어 명목상 교인 규모를 파악하고자 했다. 신념 영역, 즉 자신에게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묻는 질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근거', '신앙생활의 목적', '구원의 확신'에 관한 질문들을 명목적 교인의 기준으로 설정했다. 신앙 활동 영역에서는 예배 외의 다른 활동에 참여하는지, 그리고 평소의 기도 생활 및 성경 읽기에 대한 질문들을 통해 '실천하지 않는' 명목상 교인의 여부를 파악하고자 했다. 여기에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대답을 신앙 정체성의 결여로 인한 명목상 교인에 포함시켜, 최종 39.5%가 산출됐다. 2022년도에 미국 ACS Technologies에서 행한 Personal Faith Journey 라는 이름의 조사는 미국 전역에서 9,500명의 그리

스도인을 대상으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과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는 두 집단을 분류했다. 분류의 기준 질문은 (1)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이상 교회(또는 신앙 모임)에 참석하는지의 여부와 (2) 자신들의 삶에서 신앙이 높은 혹은 가장 지대한 중요성을 지니는 지의 여부였다. 이 조사는 두 기준 가운데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간주했다. 그렇게 해서 응답자의 33.3%가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66.7%가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분류됐다.

일반적으로 서구권의 명목상 교인 조사는 교회에 다니지 않으면서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으로 여기는 소위 '가나안 성도'까지 포함한다. 그러나 이번 목회데이터연구소 조사는 가나안 성도를 제외한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명목상 교인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가장 최근의 가나안 성도 비율이 29.3%가 나왔고, 이번에 파악된 명목상 교인 39.5%를 가나안 성도를 제외한 70.7%에 비례해서 산출하면 27.9%가 나오므로, 가나안 성도를 포함하는 서구식 명목상 교인의 비율은 전체 개신교인의 57.2%가 나온다. 이는 미국의 66.7%에 비해서 약 10%가량 낮은 수치인데,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고려할 때 수긍 가능한 측면이 있다.

명목상 교인의 비율은 남성, 저연령대, 미혼 집단에서 높게 나왔으며, 헌금과 교회 봉사, 소그룹 참여율, 양육모임 참여 의향에서 예상대로 비 명목상 교인에 비해 현저히 낮은 참여도를 보여줬다. 기독교 교리에 관한 질문에서 명목상 교인들이 가장 동의하지 못하는 항목은 기독교의 유일성과 인간의 죄인 됨에 관한 것이었다. 이는 죄와 구원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기독교 복음의 성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의미한다. 또한 신앙 윤리 의식에서도 명목상 교인들은 비 명목상 교인들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자유로운 반응을 보였는데, 특히 사주/점/풍수지리에 대해서는 그 격차가 가장 높았다. 이는 인생의 선택과 방향과도 관련되기 때문에 명목상 교인들의 낮은 신앙 의존도를 드러낸다.

의외의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은 명목상 교인이 신앙

을 가진 시기가 비 명목상 교인에 비해서 높게 나온 때는 ‘결혼 후’였다는 점이다. 명목상 교인이 모태신앙인과 같이 오래된 기독교 가정에서 양산될 것이라는 통념과 달랐다. 이는 한국의 상황에서는 특별한 신앙적 결단이 없이도 결혼을 통해 배우자의 종교를 따르는 비율이 높음을 의미한다.

명목상 교인에 대한 연구는 단순히 누군가의 신앙을 등급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다. 이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많은 이들이 인생 여정 가운데 명목상 신앙에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는 영적 변동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조사는 우리 모두가 명목상 신앙으로 흘러갈 수 있는 잠재성이 있음을 깨닫고 이를 교회 내 중요한 사역 과제로 인식하기 위함이다. 수동적이며 불확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명목상 교인이 교회를 떠나는 가나안 성도가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아예 신앙을 이탈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명목상 교인은 교회 내의 양육 대상일 뿐 아니라 선교적 대상이기도 하다.

김선일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실천신학교수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문위원)

1.[1인 가구 유형에 따른 삶의 질]

2.[거주지역에 대한 자부심]



## 이혼한 중년 남성, 1인 가구 중 행복감 가장 낮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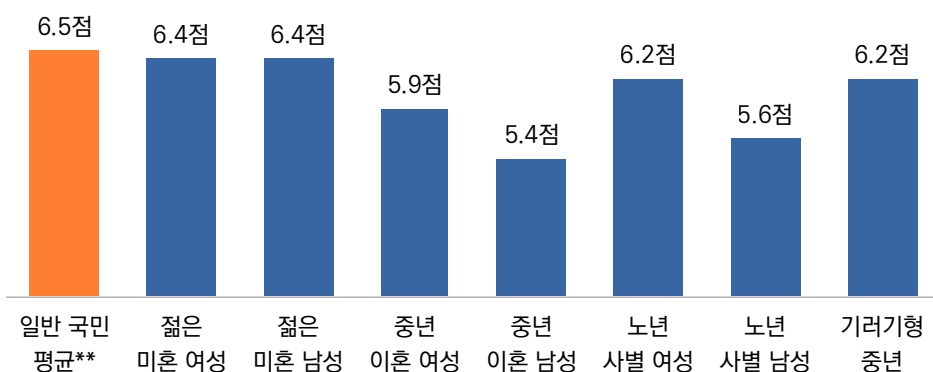
- ▶ 최근 국회미래연구원에서 발간한 '1인 가구 유형 분석과 행복 제고를 위한 시사점' 보고서를 기준으로 한국의 1인 가구를 연령, 성별, 혼인상태, 경제 소득 등을 기준으로 7가지 유형으로 구분, 각 유형별로 삶의 질을 살펴보았다.
- ▶ 총 7가지 1인 가구 유형 중 '중년 이혼 남성'에서 '사회적 고립도'와 '전반적 행복감'이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갑자기 큰 돈 필요할 때'와 '아플 때' 도움 줄 사람 없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생활 수준, 소속감, 대인관계, 안전감'에 대한 만족도 또한 평균보다 낮았다.
- ▶ 1인 가구 대다수가 전체 일반 국민 평균에 비해 '전반적 행복감'과 '생활 수준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에서도 1인 가구가 점차적으로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1인 가구에 대해 목회 차원에서 보다 깊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1인 가구 유형별 특성

	젊은 미혼 여성	젊은 미혼 남성	중년 이혼 여성	중년 이혼 남성	노년 사별 여성	노년 사별 남성	기러기형 중년
평균연령(세)	38	38	57	56	73	68	58
소득	높은 편	매우 높은 편	평균	매우 높은 편	매우 낮은 편	낮은 편	약간 높은 편
사회적 고립 (~할 때 도움 줄 사람 없음, %)							
갑자기 큰돈 필요할 때	9	11	19	<b>23</b>	19	21	12
아플 때	4	7	12	<b>21</b>	5	11	4
우울할 때	2	3	2	<b>11</b>	9	15	5

\*자료 출처 : 국회미래연구원, '1인 가구 유형 분석과 행복 제고를 위한 시사점', 2023.08.07. (전국 만15세 이상 1인가구 1,428명, 면접조사)

[그림] 1인 가구 유형별 전반적 행복감 (0~10점)



\*자료 출처 : 국회미래연구원, '1인 가구 유형 분석과 행복 제고를 위한 시사점', 2023.08.07. (전국 만15세 이상 1인가구 1,428명, 면접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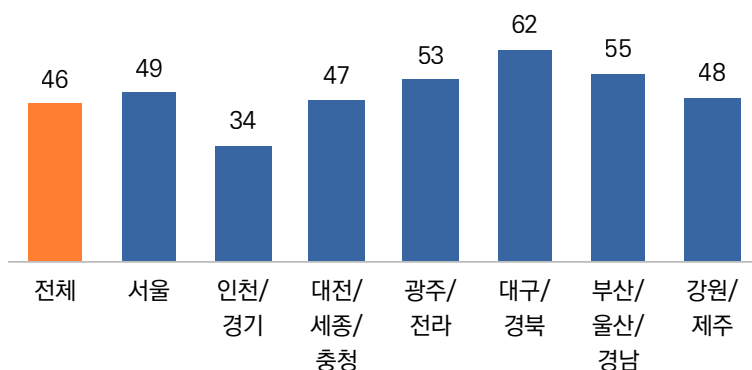
\*\*자료 출처 : 국회미래연구원, '2022 한국인의 행복 조사', 2022.12.28. (만 15세 일반국민, 17,045명, 면접조사)



## 고향에서 살고 있는 비율, 대구/경북이 62%로 가장 높아!

- 거주지역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자부심을 확인할 수 있는 지방자치 관련 조사 결과(한국리서치)가 발표되어 이를 살펴본다. 고향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일치하는지를 국민들에게 물은 결과, 응답자의 46%가 동일하다고 응답했는데, 현 거주지가 고향과 일치하는 비율은 '대구/경북'이 62%로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지역은 '인천/경기'로 34%로 나타났다. 인천/경기 주민의 나머지 66%, 3명 중 2명은 타 지역에서 유입된 인구인 셈이다.

[그림] 고향과 현 거주지역 동일 여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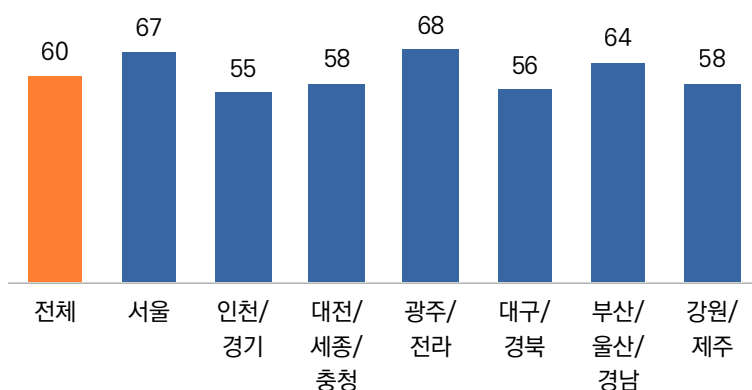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우리나라 지방자치, 어디까지 왔고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가?', 2023.11.01.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2023.10.13.~10.16.)

## ◎ 거주지역 자부심, '광주/전라' 가장 높고 '인천/경기' 가장 낮아!

- 현재 거주지역에 대해 얼마나 자부심을 느끼는지(매우+대체로 자부심 있음)를 물었더니 전체 응답자의 60%가 거주지역에 자부심을 가진다고 응답했는데, '광주/전라'(68%), '서울'(67%), '부산/울산/경남'(64%)이 평균인 60%를 웃돌며 상대적으로 높은 자부심을 보였다. 반면 '인천/경기' 지역 주민의 자부심이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현재 거주지역 자부심 ('자부심 있다'\*\* 비율, %)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우리나라 지방자치, 어디까지 왔고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가?', 2023.11.01.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2023.10.13.~1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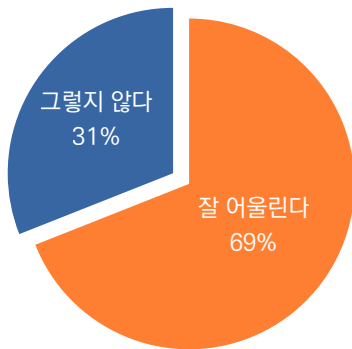
\*\*4점 척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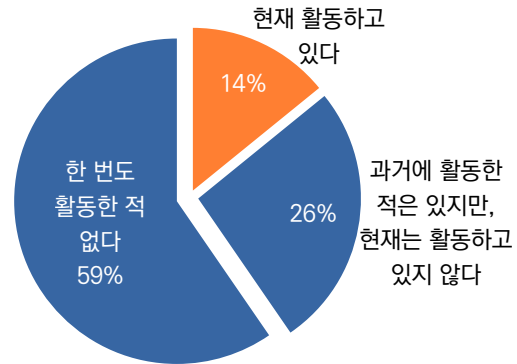
## ◎ 거주지역 기반 모임 활동률, 14%에 불과

- ▶ 현 거주지역 주민들이 다른 지역 출신 주민들과도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그 결과, 10명 중 7명(69%) 정도는 '잘 어울린다'(매우+대체로)고 응답해 대체로 주민들이 특별한 배타성 없이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 거주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모임(운동/취미/학습 동호회, 향우회 등)의 활동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활동하고 있다'고 응답한 주민이 14%에 불과했고, '한 번도 활동한 적 없다'는 10명 중 6명(59%)에 달했다. 거주자들의 지역 공동체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림] 현재 거주지역 주민들의 다른 지역 출신 주민과 어울림 정도\*\*



[그림] 현재 거주지역 기반 모임 활동 여부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우리나라 지방자치, 어디까지 왔고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가?', 2023.11.01.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2023.10.13.~10.16.)

\*\*4점 척도임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566호 \(2023년 11월 4주\)](#)

- 당대표 · 혁신위원장 역할 수행 평가, 이준석 중심 신당 창당 인식 등

[전국지표조사\(주요 4개 조사회사\) 리포트 제110호 \(2023년 11월 4주\)](#)

- 국정운영 평가, 국정운영 신뢰도, 사회적 약자 포용성 인식, 사회 갈등 등

◎ 사회 일반

["인권침해·차별 가장 많이 받는 집단은 빈곤층·장애인"](#)

연합뉴스\_2023.11.22.

[장기이식 대기자 5만명 넘었는데...뇌사장기기증 매년 400명대](#)

연합뉴스\_2023.11.26.

[3분기 '하위 20%' 가구만 소득 줄고 지갑도 닫았다](#)

연합뉴스\_2023.11.23.

[60대 이상도 무려 84%가 "다양한 결혼제도 인정해야"](#)

중앙일보\_2023.11.27.

[10명 중 5명 "육아에서 가장 힘든 부분은 '돈'"](#)

동아일보\_2023.11.24.

[2023 명품 소비 관련 인식 조사](#)

엠브레인(트렌드모니터)\_2023.11.15.

[웃은 달 사도 학원은 더 보냈다...교육 지출 11분기째 증가](#)

중앙일보\_2023.11.26.

[최고 금리 인하의 역설... 서민 100만명 불법 사채로 내몰렸다](#)

조선일보\_2023.11.23.

[1인가구만 나홀로 소득 감소... 의류-외식 지출 먼저 줄여](#)

동아일보\_2023.11.27.

[종이컵·빨대 규제 푸는 게 맞을까?...국민 77%가 "아니요, 더 강화해야"](#)

경향신문\_2023.11.24.

◎ 청년 / 청소년 / 아동

["SKY급 대학 생기는 수준"...의대 증원 수요조사에 교육계 들쭉](#)

중앙일보\_2023.11.21.

["커서 의사 될래" "뭘 할 지 몰라" 늘고, '공무원' 인기는 시들](#)

한겨레\_2023.11.26.

◎ 경제 / 기업

[취업자 79% 종사하는데, 24년째 적자 난 이 산업은?\[세종팀의 정책워치\]](#)

동아일보\_2023.11.26.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직장인 평균 수면 시간 4~6시간](#)

[톱클래스\(조선일보\)\\_2023.11.22.](#)

[대학생 30% “작년보다 취업 어려워”… 26% “신입채용 줄어”](#)

[동아일보\\_2023.11.23.](#)

[“호봉제가 공정하다”는 인식, 20대가 가장 많아](#)

[경향신문\\_2023.02.24.](#)

◎ 국제

[\[주변국 지도자 호감도- 2023년 10월\] 주요 5개국 지도자 호감도](#)

[한국리서치\(여론속의여론\)\\_2023.11.21.](#)

◎ 건강

[뇌진탕 환자, 만성 후유증 완화해주는 ‘이것’](#)

[조선일보\\_2023.11.24.](#)

[고령층 운동은 가볍게? 노인도 강도 높이면 치매 수치 낮아진다](#)

[동아일보\\_2023.11.25.](#)

◎ 기독교 / 종교

["교회는 다니지만..." 명목상 교인 10명 중 4명](#)

[노컷뉴스\\_2023.11.23.](#)

[교인 10명 중 4명 ‘선데이 크리스천’... “구원 확신” 51% 그쳐](#)

[더미션\(국민일보\)\\_2023.11.24.](#)

[반려동물에 문 연 교회... 사람 발길도 늘었네!](#)

[더미션\(국민일보\)\\_2023.11.25.](#)

[美 성도들 출석교회 바꿀 때 온라인 검색 참조 늘었다](#)

[더미션\(국민일보\)\\_2023.11.21.](#)

◎ 기획기사 : 퓨처스쿨 코리아, (매일경제)

[학생도 학교도 기업도 "우린 피해자"...패배자만 만든 학교교육 \\_2023.10.18.](#)

[정부 지원금 '사냥꾼' 전략한 대학들 ... 인재양성커녕 생존게임 \\_2023.10.25.](#)

["졸업하면 뭐하나" 또 학원인생 ..."뽐으면 뭐하나" 경력직만 찾아 \\_2023.10.25.](#)

[年126조 퍼붓는데...가성비 최악 학교교육 \\_2023.10.25.](#)

[“대학 와서 배우는 게 없어요”...인재양성 ‘나몰라라’하는 대학, 왜 \\_2023.10.25.](#)

[학교예산 남아돌아 돈 ‘핑핑’ 쓰면서...교육의 질은 오히려 뒷걸음 \\_2023.10.25.](#)

### |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경동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주다일교회, 꿈마을엘림교회, 꿈의교회, 노량진교회, 내일교회, 다운교회, 당진동일교회, 더세움교회, 덕신제일교회, 대구칠곡교회, 대덕교회, 대전선창교회, 도원동교회, 동부광성교회, 동행한빛교회, 둔산성광교회, 마산성산교회, 만나교회, 명성제일교회, 문호교회, 미디어이더교회, 밀양남부교회, 빛과소금교회, 브니엘감리교회, 사랑감리교회, 산서울교회, 산성교회, 삼덕교회, 삼천포교회, 상도중앙교회, 상암교회, 서대문교회, 서영교회, 서울동성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교회, 서울서문교회, 서울은천교회, 서울중앙교회(종로), 서울중앙교회(영등포), 서울홍성교회, 서현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내교회, 송학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신일교회, 새에덴교회, 새중앙교회, 세광교회, 아현장로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양감리교회, 에덴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영락교회, 예은교회, 예하교회, 예향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륜교회, 올리브교회, 우정교회, 울림교회, 원동교회, 은광장로교회, 은평교회, 이룸교회, 일산광림교회, 잠실교회, 장유대성교회, 정음성광교회, 제주연동서부교회, 조양중앙교회, 주사랑교회(파주), 주안장로교회, 지구촌교회, 진주삼일교회, 진주성결교회, 충신교회, 창동염광교회, 토평교회, 포항대도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소망교회, 할렐루야교회, 화전중앙교회, 희성교회 (가나다 순)

### | 후원 기관 |

기독교대한감리회 삼남연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아대책, 마을학연구소, A방과후교회학교, (사)교회갱신협의회, (사)아시아미션, 서대문ESF,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사)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한목회, 한빛누리, 한일연합선교회, CBMC광주지식포럼, CCC사역연구소, GoodTV (가나다 순)

### | 후원 기업 |

(주)가인지캠퍼스, (주)그랑블루, (주)마뜨, 메가리서치, 스페이스허브, (주)시스코프, (주)웨슬리퀘스트,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든건강과학, (주)참물류, (주)하츠/(주)벽산 (가나다 순)

### | 후원 명단 안내 |

후원자 명단(개인)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클릭](#)

### | 후원 방법 |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 | 신규 후원 |

지난 두 주간 후원 이벤트를 통해 총 107명이 저희 연구소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후원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내동교회(담임목사 천성환), 신용산교회(담임목사 오원석), 신일교회(담임목사 배요한), 혜성감리교회(이준호 목사), 아름다운교회

[기업]

(주)시스코프(대표이사 여인갑)

[개인]

강동민, 강락규, 고은영, 고재환, 권석형, 권순민, 권진구, 권혁진, 금지영, 김근배, 김명순, 김범진, 김석희, 김수연, 김영민, 김요한, 김용석, 김은성, 김은혜, 김원철, 김태우, 김현모, 김현진, 김홍삼, 노기환, 문명심, 박강석, 박종현, 박주영, 박준영, 박진규, 박재우, 박형태, 변영광, 변형석, 백윤정, 백애경, 서경희, 서성민, 서영진, 손경숙, 손세용, 신진섭, 신형민, 신희성, 심재근, 오광렬, 오운순, 오창균, 윤병성, 윤평호, 윤홍경, 이규복, 이미경, 이보미, 이산성, 이상길, 이상현, 이상호, 이석훈, 이성득, 이성수, 이성은, 이승룡, 이승주, 이영석, 이일영, 이주섭, 이준희, 이창준, 이효택, 임민택, 임성은, 임승한, 임양섭, 임창수, 원신양, 장영래, 정기목, 정대경, 정미정, 정병진, 정석범, 정성조, 정종권, 주학선, 천준영, 최명호, 최성웅, 최영준, 최윤정, 최형규, 최영철, 한동훈, 한세리, 한중수, 허민, 홍익훈, 홍정호, 황홍배

### | 미션 |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 협력기관 |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 | 섬기는 이들 |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전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전 원장)

### | 만든 이들 |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김기혁, 민선영, 유영민, 송예슬, 한미경

### | MOU 기관 |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아크연구소, (사)아시안미션, 캄보디아기독교연구소, 크리스찬타임스, (재)하나복네트워크, 한국IFCJ가정의힘,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MEAK),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일연합선교회

미주지역 :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미성대

### | 「한국교회 트렌드 2024」 책 구입 안내 |

정확한 조사 데이터에 기반하여 한국 교회 전망과 전략을 담은 '한국교회 트렌드 2024'가 출간되었습니다.

2022년 말부터 신학교 교수, 언론인, 현직 대형교회 및 소형교회 목회자, 기독교 문화 전문가, 조사 통계 전문가 등 한국교회를 다차원적으로 볼 수 있는 전문가로 TFT를 구성, 기획하고 '목회데이터연구소'가 조사와 집필을 주관하여 작년 [한국 교회 트렌드 2023]에 이은 두 번째 책입니다.



서적 소개 동영상

책 구입 안내

Tel. 02-322-0726

E-mail. mhdata@mhdata.or.kr

Addr. [06250]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201호

Copyright © 2019 목회데이터연구소. All Rights Reserved.